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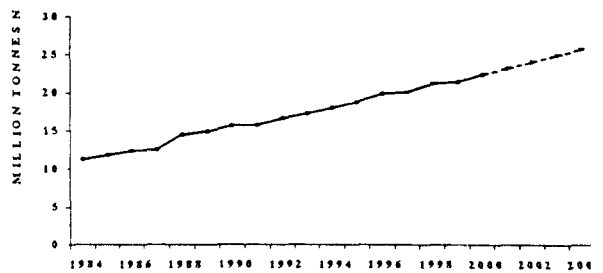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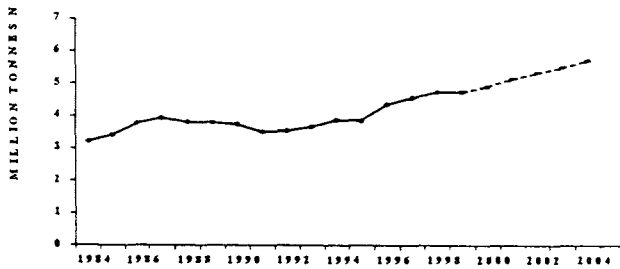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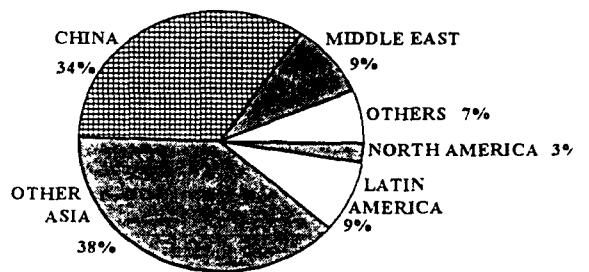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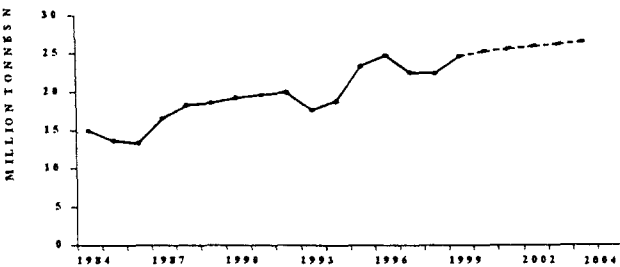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질소질을 함유한 비료 소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특히 아르헨티나에서 기존 농지의 보다 철저한 경작을 뜻하는 것이며 서부 브라질과 기타 국가에서는 곡물 재배면적의 확대를 반영하는 것이다.

재배면적의 이러한 증가는 본질적으로 운송 기반시설의 향상(새로운 도로, 새로운 철도 및 새로운 수상 운송체계)의 결과인데 이로 인하여 새로운 땅에서 경작이 가능하게 되고 곡물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 그림 10. 남미의 질소질 비료 소비 전망 > < 그림 11. 아시아의 질소질 비료 소비 전망(중국 제외) >



<그림 12. 중국의 질소질 비료 소비 전망> <그림 13. 지역별 질소질 소비 분포 현황(1998-2004)>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의 비료 소비는 정치적 경제적 변화 및 통화가치의 등락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아세아에 있어서는(중국을 제외하고) 지난 5년 동안에 나타난 것처럼 강력한 비료 소비 증가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